

요한 갈통과 TRANSCEND의 평화학

장 원 석*

목 차

- I. 머리말
- II. TRANSCEND의 평화 네트워크
- III. 폭력의 메카니즘과 주류 담론의 한계
- IV. 갈등변환의 기술과 중재의 원칙
- V. 국가와 민족의 변증법
- VI. 9·11 테러의 진단과 처방
- VII. 맺는 말

I. 머리말

요한 갈통은 평화학을 독립적인 학문의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를 받는 학자이다. 평화를 거론하는 각종 보고서와 대담은 종종 그의 이론과 개념을 인용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그의 평화이론을 소개하는 본격적인 논문은 거의 없었다. 제국주의론에 관한 몇 편의 석사학위 논문과 단편적인 인물소개 혹은 인터뷰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그의 저서 두 권이 최근 번역되었을 뿐이다.¹⁾ 그래서 필자는 근래에

*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 1)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세 편 석사학위 논문이 있다. 정중식, 「갈통의 제국주의론 연구」, 단국대 대학원(1988); 최진하,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강대 대학원(1986); 조현석, 「평화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1983). 소논문으로는 최원기,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통 박사」, 『월간중앙』 제29권 4호 (2003. 4), pp.56-62; 요한 갈통, 「세계화와 테러」, 이재봉 옮김, 『시민과 세계』, 제1호 (2002), pp.184-190; 요한 갈통, 「미국, 서방 그리고 그 밖의 세계」, 박성준 옮김, 『시대와 민중신학』, 통권 제7호 (2002), pp.388-392; 요한 갈통·진희관 대담, 「경제사회문화적교류는 한반도 평화의 첩경」, 『통일한국』 174 (1998), pp. 44-47; 요한 갈통,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 이재봉 옮김, 『평화연구』 5 (1996), pp.187-202; 요한 갈통, 「21세기 한민족의 전망」, 『신동아』 446권 (1996), pp.332-341; 요한 갈통, 「한국재통일을 위한 중립화론적 접근」, 『민족통일』 7, 8, 9, 10 (1989), pp.76-95; 황인찬, 「신제국주의이론에 대한 고찰」, 『공군평론』 80호, 81호 (1988), pp.307-335. 번역서로서는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출간된 갈통의 저서²⁾를 중심으로 그의 평화이론의 체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II. TRANSCEND의 평화 네트워크³⁾

TRANSCEND는 1993년 8월 갈통과 그의 부인 후미코 니시무라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인 갈등중재조직으로 탄생하였다. 갈통에 의하면 TRANSCEND는 지난 45년간의 연구 경험과 45개의 국제적 갈등 중재의 경험을 토대로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다. 1998년 현재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평화를 표방하는 475개의 주요 평화조직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비정부기구이다. 이들은 1980년대의 평화운동에 자극을 받아 주로 1990년대에 조직되었다. TRANSCEND도 이들 조직중의 하나이다. TRANSCEND는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초청된 학자와 200여명의 전문가들(외교관, 시민운동가, 언론인, 학생, 평화연구자, 국제기구직원, 교수,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20개의 프로그램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소장 갈통, 부소장 디트리히 피셔(Dietrich Fisher), 사무총장 카이 프리쾨프 브랜드 야콥슨(Kai Frithjof Brand-Jacobsen), 재무책임자 캐트린 카우퍼(Katrin Kauf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조직은 현재 256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원광대 정외과의 이재봉 교수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01년 중반까지 약 4천여명이 TRANSCEND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TRANSCEND 네트워크의 활동 내용을 분류하면 행동, 교육훈련, 연구, 보급 4개의 범주⁵⁾로

의한 평화』, 이재봉의 옮김 (들녘, 2000). 이 책에 대한 서평은 김기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론적 모색.” 『서평문화』 40(2000), pp.113-118 참조; 요한 갈통·이케다 다이사쿠 대담, 『평화를 위한 선택』, 손대준 옮김 (신영미디어, 1997).

2)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2002).

3) 이하 Johan Galtung, “Transcend: A Philosophy of Peace-And One Way of Enacting It.”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1990), pp.xiii-xxiii; Johan Galtung, “TRANSCEND: 45 Years, 45 Conflicts.” *Searching for Peace*, pp.173-188 참조.

4) 20개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갈등 조정, 평화건설 및 강화, 평화교육, 평화언론, 평화시대, 평화유지, 평화로운 화해, 평화산업, 개발과 생존 및 형평, 지속가능성, 평화문화, 비군사적 안보와 전쟁근절, 인권과 민주화, 글로벌 거버넌스, 여성과 평화, 평화와 개발, 평화와 예술, 평화박물관, 평화관광, 개인적 차원의 평화, 평화와 구조적 폭력.

5) 평화행동과 관련해서는 TRANSCEND 갈등서비스(TCS), 평화교육은 TRANSCEND 평화대학(TPU), 평화연구는 TRANSCEND 연구소(TRI), 평화보급에는 TRANSCEND 미디어 서비스(TMS)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TRANSCEND는 제3세계의 70-80개 신문을 대상으로 30여개의 칼럼에 기고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나누어지는데 갈등의 증재와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의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TRANSCEND는 연구의 분야에서도 몇 가지 유용한 지표개발⁶⁾을 통해서 평화연구에 기여해 왔다.

TRANSCEND는 온라인 상의 가상공동체이며(홈페이지: <http://www.transcend.org>) 모든 국제적 연락은 e-메일(transcend@transcend.org)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산부족으로 오프 라인상의 모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나 조직의 활성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대면행사를 더 많이 개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TRANSCEND 발전의 획기적 계기는 1996년 유엔의 재난관리 훈련책임자인 존 에버솔(Jon Ebersole)이 갈통에게 갈등변환에 관한 연구를 위촉한 일이었다. 그 결과 1998년 유엔에 의해 35페이지의 축약본 보고서가 12개국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2000년에는 189페이지의 완역판 보고서가 2개국 언어로 출판되었다. 이들 책자는 현재 유엔의 훈련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TRANSCEND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평화대학 수강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갈등 증재에 대해서도 이를 서비스 개념으로 파악하여 최소비용만을 수령하고 있다. TRANSCEND는 정부 혹은 갈등 당사자로부터의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기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갈통은 다음과 같이 지난날을 회상한다. 1951년 갈통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군복무기간보다 6개월이 더 긴 18개월의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나머지 잔여기간의 공익근무를 거부하였다. 그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려는 젊은이에게 사법부가 명령하는 공익근무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는 나머지 6개월간의 독방 수감생활을 자청하였고 당국에 의해서 이 요구가 수용되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법부 장관은 갈통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견해를 다시 한번 경청하였다. 그후 당국은 군복무 대신 평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반응은 곧 유럽에 보급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갈통에 의하면 TRANSCEND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버지니아주 샬롯빌(Charlottesville)의 경험이었다.(pp.174-175) 1958년 갈통은 콜롬비아 대학교 조교수로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갈등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토마스 제퍼슨의 고향으로서 국가적 평화의 상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인종갈등의 상처를 앓고 있었던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주민에 대한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지역지도자의 세 집단 - 인종차별주의자, 차별반대자, 흑인그룹 - 에 대한 패널스타디를 시작하였으며 2000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 '전쟁참여지표'(WPI)는 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 개입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조기경보지표'(EWI)는 WPI와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폭력의 수준을 근거로 한 국가가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의 크기를 측정한다. '갈등변환지표'(CTI)는 주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여 갈등변환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 결과 훌륭한 자료들이 축적되었고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그 당시 마을은 인종과 이념의 대립 때문에 세 집단 상호간에 접촉이 전혀 없었고 각각은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갈통이 이끄는 연구팀은 갈등의 과정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것을 주민들에게 끈기 있게 설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집단간의 대화가 촉진되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모든 사태는 투명하게 분석되었고 갈등은 탈신비화되었다. 결국 마을은 평화적으로 인종갈등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감사 편지와 격려 인사를 받은 갈통은 이후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인 동시에 갈등을 중재하는 실천가로서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갈통은 계속해서 두 개의 경험을 더 소개한다. 1967년 갈통은 유럽의 미래를 살펴보기 위한 유럽회의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그는 19명의 각국 외무부 책임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모임은 최종적으로 유엔유럽안보위원회를 만들어 갈등 당사국들이 모든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시도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그 해 외교회담석상에서 공식화되었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나 체코의 외무장관이 아직 때가 이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젊은 외교관이 후일 체코 외무부의 제2인자가 되자 이른바 '갈통 플랜'(Galtung plan)을 거론하였고 그 결과 보다 항구적인 조직으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제안되었다. 유럽안보회의는 1990년 파리회의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직으로서 수용되었다. 갈통은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노라고 술회하고 있다. 종종 비현실적이며 이상주의적이라고 배격받는 의견들이 시간이 지나서 현실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67년 뿌린 씨는 어느 젊은이에 의해서 전파되어 1990년에 수확을 거두었다.(p.177)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갈통은 말한다. 갈통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일화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분쟁이다. 양국은 1941년부터 국경선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는데 1995년 또 다시 국경분쟁이 발발하였다. 어느 회의에서 에콰도르의 전(前)대통령이 갈통에게 묘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했을 때, 그는 양국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로서 자연공원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전대통령은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그 후 갈통의 아이디어는 제네바에서 유엔 외교관들의 교육훈련 내용으로 활용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콰도르 대사가 갈통을 본국으로 초청하였다. 갈통과 에콰도르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다. 1998년 에콰도르는 분쟁지역을 자연공원을 지정하여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페루정부가 이 안을 수용함으로써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갈통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3자는 제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한다.(p.179)

III. 폭력의 메카니즘과 주류담론의 한계⁷⁾

갈통에 의하면 폭력과 전쟁에 이르는 표준적 역사가 존재한다. 갈등은 사회 속에 편재하지만 그것이 곧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갈등으로부터 폭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갈통이 말하는 소위 ABC 삼각형 이론이다.(p.xiv) 갈통 특유의 문장술에 의하면 갈등(conflict) = 태도(attitude) + 행동(behavior) + 모순(contradiction)이 된다. 우선 갈등은 양립불가능하거나 상호모순적인 복수의 목표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목표달성이 상대방의 존재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은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야기한다. 적과 동지의 관념이 과대망상적인 단계에 이르면 집단적인 병리현상을 보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초래한다. 동서 냉전, 유고사태, 테러와의 전쟁 모두가 동일한 메카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부드러운 태도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보수주의는 공격적인 행동만을 문제삼는 오류를 범했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만을 지적하는 오류를 범했다.(p.153) 그러므로 모순적인 목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태도, 폭력적 행동은 갈등의 심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3개의 필수적인 분석요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 우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폭력적인 문화와 억압적인 구조하에서 폭력의 발생가능성은 증대된다. 갈통에 의하면 폭력적인 문화는 DMA(Dualism, Manicheism, Armageddon) 징후군을 보인다.(p.6) 이분법은 세계를 선과 악의 두 진영으로 파악한다. 마니교주의는 선과 같이 투쟁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에 서있다고 가정을 한다. 아마겟돈은 악이 폭력에 의해서만 응징된다는 신념 속에 최후의 결전을 유혹한다. 폭력적 문화는 폭력의 행사를 보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갈통에 의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본래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폭력적 문화의 배경을 제공한다.(p.15)

갈통은 폭력을 유발하는 8개의 중요한 갈등 단층선(fault-line)을 지적한다. 그것들은 자연, 성, 세대, 인종, 계급, 배제, 민족, 국가이다. 갈통은 특히 평화의 유지자로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갈통에 의하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가체제는 과도하게 사용되었고 국가는 전쟁권을 남용하게 되었다. 국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규정되며 그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개념이다.(p.xiii) 20세기에 들어선 인류사회는 비국가적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이후 평화란 국가에게 맡기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

7) Johan Galtung, "Conflict, War and Peace: A Bird's Eye View,"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1990), pp. 3-15.

다. 냉전의 시기에 사람들은 국가의 평화의지와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의 사상에 감동을 받아서 정부에 의한 문제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평화독점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민간외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갈등에 의하면 냉전의 종식은 사실상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갈등은 한줌의 국가와 그들 국가의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왜곡된 세계화에 반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진정한 세계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갈등은 그 동안 2선에 물러나 있었던 비국가적 행위자들 - 비정부기구, 지방정부, 초국가기구 - 이 이제 전면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갈등의 주기는 폭력이전의 단계, 폭력의 단계, 폭력 이후의 단계 3개의 국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폭력이전의 단계에서는 갈등의 변환(conflict transformation)과 양극화의 해소(depolarization) 노력이 요청된다.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갈등을 창조적으로 변환시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유엔의 슬어를 빌린다면 전자는 평화구축(peacemaking)의 문제이고 후자는 평화건설(peace-building)의 문제이다. 전자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고 후자는 신체의 치유능력을 강화하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⁸⁾ 폭력의 단계에서는 평화유지를 위한 평화지대의 설정이 요청된다. 평화지대는 갈등당사자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델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군, 경찰,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폭력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제3단계에서는 폭력의 종식을 선언하고 화해의 과정을 밟게 된다.

주류의 담론은 종종 정의로운 전쟁을 명분으로 사악한 세력의 박멸을 주장한다.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로 간주된다. 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수호 등의 이름으로 전쟁은 정당화된다. 그것은 상대방 역시 동일한 논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명분은 정의를 지원하고 선량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휴머니즘의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대국의 전쟁 개입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숨은 의도를 갖고 있음을 간과한다.

갈등은 전쟁에 대한 주류언론과 정치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그들은 폭력의 표피적 현상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것의 원인을 숙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상을 단순화시켜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각각을 선과 악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고 폭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구조적 폭력을 외면하며 희생자의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들은 분쟁 개입세력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은 휴전

8) Johan Galtung. "Conflict, War and Peace: A Bird's Eye View." p.3, p.10. 갈등은 다른 저서에서 두 개념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외 옮김 (들녘, 2000), p. 231 참조.

을 곧 평화라고 생각한다.(pp.14-15)

대안적 담론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분쟁 당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다른 한편으로 갈등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갈등은 성공적인 평화담론의 사례를 4개 예시한다.(pp. 11-13). 첫째는 미국 남부의 흑백인종차별주의 극복사례이다. 한때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던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사태는 1인1표 민주주의와 흑백평등사회의 강력한 이미지가 국민 다수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비폭력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54년 5월 미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그것은 '분리되나 평등한'(separate but equal)이라는 전통적인 논리를 부정하고 '차별이없으며 평등한'(desegregated and equal)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지지하였다. 둘째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이다. 사태는 전쟁이나 제3세력의 개입없이 평화적으로 종식되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념에 대해서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델라와 클라크와 같은 지도자들이 갈등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미국의 인종차별 금지와 로디지아/짐바베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사례 역시 좋은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의 사례는 냉전의 종식이다. 최초에 동서 두 진영은 수렴이론이나 사회민주주의의의를 통해서 상호접근을 시도했지만 소련의 체제 와해로 그것은 곧 효력을 상실하였다. 시민사회가 뒤이어 문제해결을 떠맡게 되었다.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는 동구의 반체제운동과 서구의 반핵평화운동은 각각 스탈린체제를 비판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체제경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가 되자 두 개의 운동은 민간외교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었으며 그것은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네 번째의 사례는 스페인 내란이다. 내전은 일단 프랑코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다당제 민주주의를 조심스럽게 접촉하기 시작한 양진영은 1975년 프랑코의 죽음을 계기로 파시즘도 스탈린주의도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IV. 갈등변환의 기술과 중재의 원칙⁹⁾

1. 갈등변환의 기술

갈등에 의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갈등의 당사자들은 폭력을 선호하는 인물들이거나 범

9) Johan Galtung, "Crafting Peace: On the Psychology of the TRANSCEND Approach."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1990), pp.151-170 참조.

죄자 혹은 심리적 병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지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의해서 스스로 구속되고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TRANSCEND의 대화술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결론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갈등의 변환은 고도로 숙련된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갈등당사자가 상호적이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함을 의미한다. 갈등의 중재 및 해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의 근원을 치유하는 갈등변환의 기술이다. 갈등은 협상의 기술과 심리에 대해서 행태주의적이며 심리학적 관점의 접근을 시도한다.

갈등의 중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중재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이다. 선량한 중재자(honest broker)는 갈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갈등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중동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p.156) 갈등 당사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대면은 각자가 본래의 입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종종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갈등 중재자와 당사자 1인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사전에 이미 결론을 취하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술(Socratic dialogue)과는 달리 갈등의 중재는 모는 것이 열려있는 상호적 과정이다.(p.159) 갈등이 설명하는 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갈등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공포 - 긍정적인 목표와 부정적인 목표 - 를 확인하고 그 심층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에는 당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개척한다. 가령 한반도 사태의 경우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전통이나 경제협력의 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제3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p.154) 각각의 대화 당사자에 의해서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면 이것이 갈등 상대방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속성 여부를 아울러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는 갈등 당사자가 서로 자리를 같이하여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다. 갈등은 갈등의 변환에 요구되는 인지적 차원의 기술로서 예측의 논리를 적절히 구사할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현금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어두운 결과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다. 갈등은 갈등의 변환과정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광과 긍지, 수치와 분노의 감정은 전쟁과 폭력을 유발하는 배후의 심층문화(deep culture)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견지하고 있는 깊은 감정의 세계는 대표자의 역할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따라서 협상대표 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갈등과 폭력의 해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p.166)

2. 개입과 중재의 원칙

타자의 갈등에 대한 개입은 갈등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중재자의 실존적 한계로 인하여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의 중재를 위한 개입의 원칙은 신중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갈등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원칙을 제시한다.(pp.xxi-xxii)

1. 중재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제안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2. 당신 자신이 갈등당사자가 되더라도 중재자의 개입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사태에 개입한다.
3.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되 상대적 가치의 세계를 인정한다.
4. 깊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원동력을 확인한다.
6.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결책을 고집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숙고한다.
7.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대화를 격려한다.
8. 지도자들만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폭 넓은 참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9. 중재의 결과는 두려움이나 보상의 욕망이 아닌 정의의 관념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10. 중재의 결과는 외부로부터의 힘이 아닌 내부적 지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갈등은 곧 이어 현장에서 활약하는 갈등 중재자를 위한 19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p.xxiii)

1.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여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
2. 갈등중재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3. 갈등중재 이외에 숨겨진 의제를 갖지 않는다.
4. 정당성의 근원은 중재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 열정과 인내이다.
5. 갈등중재자가 갈등 당사자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경우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
6. 당사자 모두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7.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도를 취한다.
8. 비밀의 요구를 존중한다.
9. 갈등 당사자로부터 일반적인 환대를 넘어서는 보수나 선물을 받지 않는다.
10. 갈등 당사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당사자의 허락을 요구한다.
11. 갈등 당사자들 각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화한다.
12. 고정관념을 버리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13. 취소할 수 없는 제안은 하지 않는다.
14. 개인이나 조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15. 개입의 필요성이 종료되는 경우 즉각 철수한다.
16. 갈등해소를 위한 계획과 과정은 증재자나 당사자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귀속된다.
17. 자신의 기술, 지식, 경험을 타인과 공유한다.
18. 당신이 증재를 했거나 증재를 할 계획인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다.
19. 갈등증재의 업무는 훌륭한 임무 수행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갈통이 소개하는 창조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구체적 사례는 소말리아의 시르(shir)이다

“그것은 갈등해결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우선 갈등에 연루된 부족의 모든 성인남자를 소집한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다혈질의 전사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사람들은 무더운 대낮의 열기를 피해서 가시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한담을 나눈다. 순한 대마초를 서로 권하면서 오랜 친구들 혹은 적들과의 만남을 즐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갈등의 주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 결과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이다. 그것은 유엔이 기획한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호텔 회의장의 임시변통적인 평화와 성격이 다르다.”(p.170)

갈통은 갈등의 해결에 시간적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청됨을 강조하며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한다. “모든 진리는 3개의 단계를 통과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것은 조롱거리가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것은 자명한 진리로 수용된다.” 갈통은 여기에 제로(zero) 단계를 추가한다. “처음에는 모두가 침묵한다.”(p.182)

V. 국가와 민족의 변증법¹⁰⁾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국가와 2000여 개의 민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민족국가는 2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80개 국가는 대부분 패권을 장악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

10) Johan Galtung, “The State/Nation Dialectic: Some Tentative Conclusions.”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1990), pp. 126-141.

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은 성스러운 시절과 성스러운 공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갈통에 의하면 1980개의 잠재적 독립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p.126) 다민족 국가로서 구성원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오직 스위스뿐이다. 두 개 이상의 민족이 동일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것은 참으로 양립불가능한 모순을 초래한다. 심지어 관용이나 평등의 정신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갈통은 특정 민족에 대해서 분리나 합병을 강요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과 유사한 불의라고 말한다. 국가와 민족의 변증법은 지구촌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고의 중요사안이다.

냉전이 종식되자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에 의해서 억제되었던 민족주의의 판도라 상자가 개봉되었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적 통합의 변증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족자결의 요구는 국가탄생의 당위를 의미하는가? 갈통은 민족자결의 요구가 자치권의 획득이라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독립이라는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상대집단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때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책임의 원칙을 수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치이다.(p.131) 갈통의 해결은 당사자 모두가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속가능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가족과 이웃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박차 나가는 배우자는 설령 고통받은 부인이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p.134) 갈통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 역시 탈신비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민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갈통은 민족과 영토분쟁에 관한 33개의 사태를 3개로 유형화 한 후 현장조사를 토대로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1민족 1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조류에 따른 이민의 물결로 인해서 동일한 문제와 직면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나 북유럽(Nordic) 국가처럼 장시간에 걸쳐 국가적 혹은 민족적 흡수와 동화현상이 진행될 수 있다.

첫째, 4개의 사례는 1민족 다국가/영토의 경우이다. 한민족(Koreans), 쿠르드(Kurd)족, 사미(Samis)족, 마야(Mayas)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쿠르드족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르메니아 5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미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4개국에, 마야족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에 분산되어 있다. 한국은 특수한 사례이다. 갈통은 다음의 5가지 대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데 수용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달려있다. 1) 거주하는 지역에서 평등한 인권을 실현한다. 2) 국내적으로 자치권을 획득한다. 3) 국가별로 의회를 구성하고 자치권을 상호 연결시켜 독립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연합을 건설한다. 4) 자치권을 상호 연결시켜 연방국가를 건설한다. 구성단위들은 자율성을 일정부분 보유한다. 5) 단방제 국가를 수립한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3)-4)-5)의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p.136)

둘째, 9개의 사례는 다민족 1국가/영토의 경우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로디지아/짐바베, 하와이, 힌두/모슬렘, 소말리아, 중국, 레바논, 일본/러시아, 에콰도르/페루가 여기에 해당된다. 갈통은 이 경우에 대해서도 5가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들은 첫째의 사례와 반대로 국가해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1)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단방제 국가를 지향한다. 이것은 로디지아가 짐바베로 국호를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인도의 모슬렘에 대해서 적용된 공식이기도 하다. 2)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제안되는 방식이며 현재 하와이 원주민들에 대한 적용가능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3) 재정, 외무, 안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연방국가를 창설한다. 소말리아의 경우 비영토적인 연방제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의 경우도 다음의 4)와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한 방식이다. 4) 구성원 모두가 독자적으로 재정, 외교, 안보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de facto) 독립을 실현하는 국가연합을 건설한다. 인도의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구성원 모두가 사실상(de facto), 법률상(de jure)의 독립을 쟁취하는 단계이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오끼나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6) 마지막 방식은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일본의 분쟁과 안데스 지역의 에콰도르/페루의 분쟁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분쟁지역을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일종의 평화지대를 선언하는 이 방식은 구체적으로 자연공원, 경제특구, 캠프지대, 갈등조정센터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바스크 지역, 한국의 DMZ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137)

셋째, 나머지 20개의 사례는 다민족 다국가/영토의 경우이다. 이것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코카서스 지역의 갈등은 3개 국가와 28개의 민족, 외부의 개입 세력 4개 국가에 의해서 진행된다. 세 번째 유형의 사례는 대체적으로 산악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코카서스, 피레네, 유고슬라비아, 히말라야, 힌두쿠시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식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다. 그것은 지역내의 국가간, 기업간, 시민사회간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울타리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민족 다국가/영토의 구성요소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결합하는 경우 긴장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울타리의 형식은 협의체, 국가연합공동체, 연방국가, 지역국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갈통이 제안하는 울타리 조직의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반구(半球) 포럼, 중동 안보협력기구, 남동부 유럽 안보협력기구, 코카서스 안보협력기구, 중앙아시아지역협력연합, 중앙아프리카 국가공동체, 지중해안보협력기구, 동아시아공동체,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기구.(pp.138-139)

갈통은 이상의 분석 외에도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비영토적 통합(non-territoriality)의 방식이다. 가령 사미족은 주소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등록을 한 후 각집단

은 하나의 의회를 확보하고 연방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 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영토적 통합에 접근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내부적 열기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기능적 주권(functional sovereignty)의 방식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요구하는 주권의 내용과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주권의 내용을 비교하여 절충안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독립이나 현상유지나 이분법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공동주권이론(condominium/joint sovereignty)의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토가 반드시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 귀속된다는 발상에 도전하여 공동의 소유 관념을 개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남극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갈등해결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신 해당지역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를 남긴다.(p.140)

Ⅴ. 9·11 테러의 진단과 처방¹¹⁾

갈통은 1988-91년 미국이 걸프상공에서 이란의 민간항공기를 격추하고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이미 맨하탄의 교량 폭발이나 터널 파괴 같은 비극적 사태의 발생을 예견했다고 말하며 사태를 분석한다.

1. 진단

갈통에 의하면 9·11사태에 대한 주류의 담론은 그것을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알카에다(Al Qaeda)의 테러로 본다. 테러는 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 정규적 군사행동과 달리 예측을 불허하는 수단을 동원하여 대량살상을 꾀하는 행동으로서 필연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희생을 수반한다. 한편, 테러는 이념적 차원에서 볼 때 증오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근본주의적 의식구조에서 기인한다. 갈통은 주류담론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문제삼는다. 첫째, 국가테러도 테러이다. 갈통에 의하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미국 공군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공습이나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 역시 테러이다. 적군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시민의 살상을 불사하는 군사작전은 테러의 범주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p.88) 다음에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국가테러는 전후의 시기에 와서 더욱 빈발하고 있다. 둘째, 근본주의적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일부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빈라덴이 이교

11) Johan Galtung, "11 September 2001: Diagnosis, Prognosis, Therapy."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1990), pp. 87-102.

도를 중요하고 사악한 제국과의 투쟁을 주장하는 것처럼 콜린 파월(Colin Powell)은 미국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세계를 이끌도록 건설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예수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철학자라고 말하며 미국의 편을 들지 않는 국가는 테러주의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테러와의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결로 파악될 수 있다.(p.89)

그러나 미국의 일부 견해와 서구의 상당수, 그리고 여타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석은 보복(retaliation)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9·11 사태는 중오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가 된다.(p.90) 물론 이러한 해석이 사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어떠한 동기에서 보복을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세계무역센터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고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직접적 폭력의 상징이다. 갈통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가 시장경제의 급속한 팽창을 통해서 이윤만을 강조하고 소외집단의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한 채 핵심국가의 핵심세력만을 살찌게 했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수시로 자행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1890년부터 2001년까지 134개 사건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제2차세계대전 이전은 일년에 1.15건, 이후에는 1년에 1.29건의 평균수치를 보여준다. 냉전 종료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1년에 2건으로 증가한다. 이는 제국의 팽창과 분쟁 개입의 빈도가 비례한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미국의 개입은 군사적인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인 암살, 독재정권 지원, 선거조작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테러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제국투쟁이며 문명의 충돌과 무관한 현상이다.(p.94) 갈통에 의하면 국가폭력의 문제를 고려할 때 보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빈 라덴이 아니라 헨리 키신저(Henry Kissenger)이다.(p.96)

2. 예측

갈통은 단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승리로 일견 사태는 종료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빈 라덴은 순교자가 될 것이고 이슬람 사회의 중요성은 증폭될 것이며 테러조직은 새롭게 재조직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반미투쟁을 위해서 재차 단결할 것이다. 무력수단을 통한 승리는 갈통의 근원을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 다음날부터 보복이 시작되고 폭력이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갈통에 의하면 미국의 승리선언은 자기파멸을 초래할 것이다.(p.99)

갈통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9·11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사회이다. 베

트남과 같은 자급자족적 농촌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둔감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파급효과로 인해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시민들은 사기저하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 노예제도나 식민지주의가 종말을 고했던 것처럼 이슬람을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압제 역시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한때 노예소유주들은 흑인노예의 항거에 대항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폭력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식민지를 경영했던 열강들은 식민지의 저항에 대응해서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3. 처방

갈통은 우선 9·11 사태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서 언급한다. 꺄럽이 9·11 직후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테러범이 확인된다면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해당국가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해야 하는가 혹은 범인들을 인도받아 법정에서 세워야 하는가?” 공격을 찬성하는 국가는 3개국뿐이었다.(이스라엘 77%, 인도 72%, 미국 54%).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한 해결방식은 30개 국가에서 평균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영국 75%, 프랑스 67%, 라틴아메리카는 80%를 훨씬 상회하였다). 간단히 말한다면, 세계는 무력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의의 구현을 바라고 있다. 갈통은 재판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것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유엔은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4개 국가가 기독교국가이고 중국은 유교국가로서 이슬람국가의 이익이 전혀 대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사건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이다. 갈통이 제안하는 재판은 리비아 모델(Libya model)이다.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된 팬암(PanAm)기 추락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였다.¹²⁾

갈통이 제시하는 9·11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갈통은 양측 모두에 대해서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와 대오각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

12) 로커비 사건은 지난 1988년 12월 21일 뉴욕행 팬암 보잉747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로커비 상공에서 폭파되어 259명 탑승자 전원과 지상에 있던 11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보리는 1992년 팬암기 폭파용의자 인도 압력의 일환으로 리비아에 대해 무기수출과 항공운항을 금지시켰다. 리비아는 1999년 항공기폭파 용의자 2명을 국제법정에 인도했으며 그 중 리비아 정보요원 출신인 압델 바세트 알리 알-메그라히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에서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되었던 다른 리비아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되었다.

로 하는 작업이다. 우선 이슬람 민중은 간디적인 방식을 통해서 비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테러주의와 억압적인 체제 모두를 고립시켜야 한다. 테러주의자와 억압적 정권은 종종 동일한 이슬람 강경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p.97) 갈통은 오사마 추종자들이 9·11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옳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미국, 유럽, 일본의 대사관 주위에서 이들 국가가 범하는 세계적 불의를 규탄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동시적이며 평화적인 대중시위를 조직하는 일이다. 혹은 결핍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비양심적인 국제기업의 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갈통은 과거 동서 냉전의 종식이 그랬듯이 남북간의 갈등도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다. 범세계적인 반핵평화운동과 반스탈린주의 저항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반세계화운동, 이슬람의 테러와 억압정치를 반대하는 운동 역시 최종적으로 남북의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미국은 직접적 혹은 구조적인 폭력의 행사를 자제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행안은 다음의 7가지 내용이 될 것이다.(pp.97-98)

1) 팔레스타인을 국가로서 인정한다. 2) 아라비아를 성지로 인정하고 모든 미군기지를 철수한다. 3)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4) 이란의 대통령 하타미(Khatami)의 초청에 응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한다. 5)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고 이 지역을 유엔의 신탁통치에 위임한다. 6) 삶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극빈지역에 대해서 '세계화예외지역'(globalization-free zone)을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준비한다. 7)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 독일은 자신이 정복했던 18개국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서술하였다. 갈통은 이러한 과정이 시민사회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갈통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들의 의식세계는 나찌체제하의 독일인들이 공산주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테러주의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p.94)

마지막으로 갈통은 중재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마디 조언한다. 양측의 대표 - 부시와 빈라덴 혹은 제2인자들끼리 - 가 서로 자리를 같이하여 자신들의 세계관을 토론하고 복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래리 킹 라이브(Larry King Live) 같은 프로에 출연한다면 이상적인데 지미 카터(Jimmy Carter), 프레드릭 드 클러크(Fredrik de Klerk),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같은 선량한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p.102)

Ⅵ. 맺는 말

45년의 실무와 연구에 대한 갈통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 같다. 그는 소위 말하는 정치현실주의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반문하며 일련의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45개의 국제적 갈등사례는 진단, 예측, 처방의 3단계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되었다. 그의 결론은 간결하며 종종 번득이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절망적인 사안의 경우에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태도도 돋보인다. 그 결과 유엔은 그의 이론을 갈등해결의 지침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갈통의 저서를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소한 것이지만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갈통은 자신의 생각을 정제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문장을 전개한다. 학술논문의 엄격함이나 철학적 단상의 유려함을 찾아 볼 수 없다. 불필요하게 부호나 수식을 동원하고 망라성과 상호배타성이라는 기본원리를 적용시키지 않는 개념과 분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과신이 지나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의 이론은 종종 개인적 일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 가령 자신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몇 년 후 정책입안자가 자신의 이론을 많이 참고했다고 회상하더라 혹은 자신의 이론대로 사태가 해결되더라 하는 식이다 - 그것은 사물의 일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45개 지역의 분쟁에 대해 단정적으로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그의 태도이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절대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구촌 사회의 모든 분쟁을 몇 페이지의 처방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의 용기에 대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필자의 느낌은 다음의 서평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 이러한 자만심 속에 내재해 있는 위험은.. 분석자가 환자의 구체적 상태보다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지식이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게 이해된 자료 위에서 이론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가령 북아일랜드에 대한 저자의 처방은 매우 피상적이며.... 스리랑카에 대한 처방도 설득력이 부족하다.....”¹³⁾

또 다른 서평 역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이 책에서 제시된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도구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

13) Johan Darby,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The Ethnic Conflict Research Digest*, vol.4, no.1 (May 2001), pp.19-20.

들을 현실화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많은 갈등을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결함들은 평화학의 대부로서 갈등의 사상과 이 책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제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엘리제 볼딩(Elise Boulding)이나 아나톨 라포르트(anatol Rapport)가 말하듯이 이 책은 평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일 것이다.

□ 부 록

<2003년 TRANSCEND 훈련 계획표>

1. 기간: 2003년 11월 3일 -7일
2. 장소: Cluj-Napoca, 루마니아
3. 교육훈련 내용: 평화건설, 갈등변환, 탈냉전과 화해 및 재건
4. 참가대상자: 개발원조단체 실무자, 외교관,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 정책입안가.
5. 참가비: 북미, 서유럽, 동남아 일부국가는 700 유로, 기타국가는 400 유로
6. 신청서에 양식에 따라 200자 내외로 본인의 배경과 활동사항을 기입하고 200자 내외로 프로그램 참가이유를 기입할 것.
7. 기타 사항: TRANSCEND의 협력단체인 루마니아 평화행동훈련연구소(PATRIR)의 코디네이터인 Sorana Olaru(sorana@patrir.ro)가 비자발급을 비롯한 서류절차를 도와줄 것임.

<2004년 2월 학기 TRANSCEND 평화대학 모집요강>

1. 개강: 2004년 2월 9일(12주 코스)
2. 학비: 500 유로
3. 수강료입금: Ion Tiriac Bank (Cluj-Napoca, Romania)

14) Henrik Mungenast,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14, no.2 (2001), pp. 209-210.

4. 개설강좌명 및 담당교수

<강좌명>	<담당교수>
평화로운 갈등변환	Johan Galtung(노르웨이)
비폭력적 안보	Dietrich Fisher(미국)
정치철학으로서 비폭력	Jorgen Johansen(노르웨이/스웨덴)
평화건설	Kai-Brand-Jacobsen(캐나다/노르웨이/루마니아)
평화저널리즘	Jake Lynch and Annabel McGoldrick(영국)
평화예술	Olivier Urbain(일본)
갈등과 심층문화	Johan Galtung and Wilfried Graf(오스트리아)
폭력과 화해	S.P.Udayakumar, Pua Burgess(인도)
제대, 군축 및 통합	Alejandro Bendana(니카라과)
발전과 탈식민화	Imiola Young and Poka Laenui(미국)
민주화와 발전	Paul D. Scott(일본)
대화, 평화, 발전	Katrin Kaeufer(미국) and Claus Otto Scharmer(미국)
평화와 관광	Lynda-Ann Blanchard and Freya Higgins-Desbiolles(호주)
평화산업	Jack Santa Barbara(캐나다)
평화와 거시역사	Sohail Inayatullah(호주)
평화박물관	Christophe Bouillet(프랑스)
평화지대	Christophe Barbey(스위스)
연방주의	Akhtar Majeed(태국)

(web: <http://www.transcend.org/tpu>)

(Tel: + 40-724-380511)